

COPD 바로 알기

COPD란?

COPD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약자로 만성적으로 호흡장애를 초래하는 폐질환의 총칭이다.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이 대표적이며 기침, 호흡곤란, 천명, 과도한 가래가 주요 증상이다.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손상되고 기도가 폐색되는 질병이어서 근래 가장 심각한 호흡기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상과 원인

만성기침과 객담(가래) 분비를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을 보이며, 폐포관과 폐포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말초기관지의 기도가 막히는 호흡곤란과 천명을 불러오는 등 만성적인 폐쇄성폐질환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운동시에만 호흡곤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급기야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호흡곤란을 겪게 된다. 즉, 기관지와 폐포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의하여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지 폐쇄질환이다.

또한 입술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뭉툭해지는 곤봉지 현상이 나타난다. 주요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을 장기간 계속하면 기관지내에서 흡입되는 여러 물질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섬모운동의 역제를 불러오고, 이는 기관지 수축, 기능장애 및 폐기종 등으로 진행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COPD로 진행된다. 환경문제와 각종 유해가스, 직업상의 분진 등으로 인해 발병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는 난방이나 부엌에서의

요리과정에서 실내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자의 폐나 기관지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남녀 COPD 환자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1.7배 높다.

진단 및 치료

자세한 병력과 진찰소견이 중요하며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및 폐기능 검사는 필수이다.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검사를 자주 하고 때로는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도 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1~2년마다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흡연자도 3~4년에 한번씩 폐기능 검사를 받도록 한다.

COPD는 완전한 치료보다는 증상을 호전시켜 일상생활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치료의 성패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하여 얼마나 충실히 치료 목표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므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일정표가 필요하다. 환자의 금연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실천사항이다. 이밖에 전문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관지확장제가 주로 사용되고 항생제의 적절한 투여가 필요하며, 물리요법으로써 호흡훈련과 조정으로 제한된 폐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증상을 경감시키고 환자의 기동력을 증대시킨다. 또한 산소도 약의 하나로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소량을 처방받아 투여하여야 한다.

COPD는 정기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증상에 따라 1년에 한번 내지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시에 악화되었다가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학적인 관리를 잘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호흡기감염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독감이나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9월, 10월이 예방주사를 맞는 좋은 시기이다. †

※ 위의 내용은 대한결핵협회가 발간한 <금연, 결핵, COPD>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